

# 광주 통근 '30분 컷'...갈수록 늘어나는 출근 시간

### 광주 30~45분 35% 5년 새 3.5%P ↑ 전남 15분 미만 40.3% 최다 광주·전남 통근 인구 142만4035명...5년 새 7만9875명·5.3% ↓

지난해 기준 '15분' 안에 통근하는 광주시민 비중은 20%인 반면, 전남은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통근 인구는 지난해 기준 142만4035명으로, 5년 전(150만3910명)에 비해 5.3%(-7만9875명) 감소했다.

5년 새 광주 통근 인구는 63만9412명에서 63만8602명으로, 0.1%(-810명) 줄었다. 전남은 86만4498명에서 78만5433명으로, 9.1%(-7만9065명) 감소했다.

지난해 15분 안(편도)에 근무지에 도달하는 광주 시민은 12만9082명으로, 전체 통근 인구의 20.2%를 차지했다. 전남은 40.3%(31만6348명)로, 광주 비중의 2배에 달했다.

5년 전과 비교해보면 15분 미만으로 통근하는 비중은 광주·전남 각각 1.9%포인트, 3.7%포인트 감소했다.

통근 시간 구간별로 보면 광주는 '30~45분'이 35.3%로 가장 많고 ▲15~30분 34.2% ▲15분 미만 20.2% ▲45~60분 4.6% ▲60~90분 4.6% ▲90~120분 1.1% ▲120분 이상 0.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15분 미만' 40.3%에 이어 ▲15~30분 32.3% ▲30~45분 22.4% ▲60~90분 2.4% ▲45~60분 2.0% ▲90~120분 0.6% 등으로 높았다.

5년 전보다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구간은 '30~45분'으로, 광주는 31.8%에서 35.3%로, 3.5%포인트 증가했다.

전남지역도 18.8%에서 22.4%로, 3.6%포인트 늘어났다.

광주에서 한 시간 넘게 통근하는 인구는 총 3만6768명으로, 전체 통근 인구의 5.8% 비중을 차지했다. 전남에서도 2만3601명(3.0%)이 한 시간 넘게 통근했다.

1시간 이상 통근 비중은 광주가 2015년 8.8%에서 5.8%로 다소 줄고, 전남은 3.4%에서 3.0%로 소폭 감소했다.

2시간 이상 통근하는 인구도 광주 343명·전남

46명 있었다.

광주 5개 구(區) 가운데 한 시간 이상 통근 시민이 가장 많은 지역은 북구(1만1642명)였다. 이와 달리 15분 미만 통근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광산구(4만1084명)였다.

15분 미만 통근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 역시 광산구(22.5%)였으며, 동구(21.7%), 북구(19.5%), 서구(19.4%), 남구(17.7%)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조성으로 신규 주거단지가 들어서면서 15분 안에 통근을 마치는 나주시민 비중은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줄어 들었다.

나주시 15분 미만 통근 인구 비중은 2015년 49.4%(2만2626명)에서 지난해 37.8%(1만7929명)로, 11.6%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5년 동안 15분 미만으로 통근하는 전남도민 비중은 44.0%에서 40.3%로 줄었다.

반면 15분 미만 통근 비중이 늘어난 시·군은 신안(3.1%P), 담양(1.4%P), 화순(1.2%P), 강진(0.9%P), 곡성·구례(각 0.8%P), 고흥(0.5%P), 보성(0.3%P) 등 8개 지역이었다.

지난해 기준 15분 미만 통근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농업 인구가 많은 신안(66.3%)이었고, 국가 산업단지가 들어선 여수(27.3%)가 가장 낮았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통근·통학 평균 소요시간은 10년 새 소폭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평균 소요시간은 2010년 25.2분, 2015년 26.3분, 2020년 25.6분 등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18.8분→19.2분→19.9분 등으로 늘어났다. 특히 전남은 매 조사마다 17개 시·도 중 통근·통학 소요시간이 가장 짧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2015만 달러 수출계약 성과

### 17건 계약 등 성황리 마무리

'제19회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및 컨퍼런스'가 2015만 달러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두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의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에 미주, 유럽, 아시아 등 14개국 113명이 참가했다. 국내 광융합 기업들과 97건의 상담을 통해 6500만 달러의 수출상담이 이뤄졌고, 총 17건 2015만 달러의 수출계약이 성사됐다.

이번 전시회는 온·오프라인 참여형 전시회의 형태로 개최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국내 광융합기업과 세계 각국에서 참여한 해외 바이어 간 적극적인 상담이 이뤄졌다.

또 ECOFA, KAPID, KOTRA 등 수소 연료 전지와 관련된 한·일 기업 사업협력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해당 업무협약으로 동아퓨어셀은 일본에 1000만 달러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를 수출할 계획이며, 에너지 유망국가로의 진출을 적극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신화종합건설과 다윈씨앤티 등 국내 기업·기관이 참여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마초 농작물 재배 및 시스템 시범사업 관련 MOU도 체결, 내년 미국을 방문해 본격적인 업무협의를 향후 1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일자리 창출 홍보관에서는 광주지역 산업 맞춤형 구인·구직 종합 일자리 매칭의 장이 마련돼 취업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됐다. 또한 비대면 마케팅으로 B2B(실시간 온라인 유튜브), B2C(네이버라이브커머스)가 진행됐고,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시청자수 1만5000여명을 기록하는 등 성공적인 마케팅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용진 광산업진흥회 부회장은 "이번 온·오프라인 전시회 성과를 계기로 글로벌 마케팅의 장을 열어 국내 광융합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비대면 해외마케팅을 연계해 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고령 농업인 김장김치 전달 29일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함평군 대동면에서 고령 농업인 등을 위해 한국새농민 전남도회·고향주부모임 전남도지회·농가주부모임 전남연합회와 마련한 우리 농산물 건강구미와 김장김치 3000상자를 전달하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 광주·전남 식품산업 수출액 5억4600만 달러

### 10월 누계 전년비 20.5% 증가

광주·전남지역 식품산업 수출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식품산업 수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누계 기준 광주·전남 식품산업 수출은 5억4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했다.

광주는 김과 미역 등 해조류사 수출을 견인했고, 전남은 김과 분유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지난달 식품류 수출은 9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4% 늘었다. 전년과

비교해 담배(124.1% ↑)와 김(148.2% ↑), 미역(112.8% ↑)이 증가했고, 맥주(22.6% ↓)와 과자(16.7% ↓)는 감소세를 보였다.

전남은 같은 기간 4억5100만 달러 수출을 기록해 전년 대비 21.2%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품목별로는 분유(100% ↑)와 김(21.1% ↑), 미역(21.8% ↑), 유자조제식품(12.7% ↑)이 증가했고, 전복(3% ↓)은 감소했다.

대표적인 K-FOOD로 꼽히는 김은 2019년부터 광주·전남에서의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김 수출액은 지난달 전년 대비 23% 증가한 1억7200만 달러로, 전국 김 수출액의 30.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

## 삼성전자, 임원 직급단계 축소·직급 표준체류기간 폐지

### '뉴삼성' 인사제도 발표

삼성전자가 나이와 상관없이 인재를 중용해 젊은 경영진을 조기 육성하고, 부사장과 전문 등 임원 직급을 통합하기로 했다. 또 임직원 승진 때 직급별 체류기간도 폐지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29일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중장기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미래지향 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대대적인 인사제도 개편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우선 연공서열을 타파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인재를 과감히 중용해 젊은 경영진을 조기에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사장·전문' 직급을 '부사장'으로 통합하고, 임원 직급단계를 과감히 축소함과 동시에 '직급별 표준 체류기간'을 폐지해 젊고 유능한 경영자를 조기 배출할 수 있는 기반 구축했다.

직업 승격의 기본 조건이었던 '직급별 표준체류기간'을 폐지하는 대신 성과와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한 '승격세션'을 도입한다. 회사 인트라넷에 표기된 직급과 사번 정보를 삭제하고 매년 3월 진행되던 공식 승격자 발표도 폐지하는 것은 물론,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확산을 위해 사내 '상호 존댓말 사용'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우수 인력이 정년 이후에도 지속해서 근무할 수 있게 '시니어 트랙' 제도도 도입한다.

평가 방식에도 변화를 줘 기존 '엄격한 상대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성과에 따라 누구나 상위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대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성과자 인정과 동기부여를 위해 최상위 평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10% 이내로 운영할 예정으로, 부사장 한 명에 의해 이뤄지는 기존 평가 방식을 보완하고 임직원 간 협업을 장려하기 위해 '피어(Peer)리뷰'를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일반적인 동료평가가 갖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등급 부여 없이 협업 기여도를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밖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주요 거점에 공유 오피스를 설치하고, 창의적인 근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카페·도서관형 사내 자율근무존을 마련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의 새 인사제도 개편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 주 중 삼성 주요 계열사 사장단과 임원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909.32 (-27.12)
↓ 코스닥	992.34 (-13.55)
↓ 금리(국고채 3년)	1.844 (-0.019)
↓ 환율(USD)	1193.00 (-0.30)

포도에서 만남시다  
진혜진 시집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넬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 포도에서 만남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현양대 국문과 교수

진혜진 시인 프로필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산맥 등단 | 시집 '포도에서 만남시다'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시산맥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